

『율리시스』에 나타난 몸의 억압: 불륨을 중심으로

송 인 영

I.

서양문화에서 인간은 통상 몸과 정신으로 구별되어 파악되었다. 이러한 이분법적 인식은 플라톤(Plato)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 이후 스콜라 철학에서 맥을 잇다가 데카르트(Descartes)의 이성주의 철학에서 그 정점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플라톤은 영혼을 항구적이며 불변하는 이데아로, 육체를 일시적이며 변질하기 쉬운 물질로 간주하는데, 육체에 관해서는 “[인간의 몸은] 격심한 움직임을 겪는데, 그를 통해 사람은 움직이지만, 그것은 질서나 체계 없이 아무렇게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Barkin 13 재인용). 그리고 데카르트는 주체성의 개념을 정립하면서 이성의 탁월한 활동을 부각시키는 한편으로 육체를 기계적인 물질로 폄하하였다. 그는 영혼이 두뇌의 송과선을 통해 육체로 들어와 마치 육체를 기계처럼 조종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기계주의적 육체관은 서구 근대사에 있어서 몸을 사회적 통제와 과학적 사물화의 대상으로 고착화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된다(Judovitz, 67-109).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가 갖는 문제는 과연 인간의 본질을 몸과 정신으로 확연히 구분할 수 있는가 라는 점이며, 나아가, 이러한 관점이 정신성에 대한 찬양과 몸에 대한 폄하를 초래하면서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왜

꼭시켜 왔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몸”에 관한 생각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 유익한 작업이다. 왜냐하면 그의 고백적 예술에서만 아니라 작품 『율리시스』안에는 몸 자체에 대한 그의 각별한 관심이 넘쳐날 뿐 아니라 이러한 관심은 서양의 지배적인 몸/정신의 이분법에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데로 이어져, 우리가 태초에 그러했지만 문명화 과정을 통해 상실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귀환해야만 할 종착점으로서 몸과 정신의 합일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조이스의 “몸”에 관한 생각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하자. 조이스는 그의 친구이자 화가인 프랭크 버진(Frank Budgen)에게 『율리시스』에 관해 언급하면서 “몸은 인간성이 충만한 집”이라고 정의하면서 “인물들에게 몸이 없으면, 정신도 없는 셈이다”(Budgen 21)라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파리에서 의학 강좌를 들을 당시, 조이스는 유난히 몸과 정신이 만나는 지점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고 전해진다(Budgen 108). 이러한 점들은 조이스가 몸과 정신을 갈라놓고, 숭고한 정신과 대비하여 몸은 하나의 물질적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비하시켜온 기존 패러다임에 근본적으로 대립하고 있음을 암시해준다. 조이스는 인간은 본디 몸과 정신의 합일체이며, 이러한 합일의 경지에서만 인간성이 온전히 발현될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보인다. 그에게 인간의 몸은 단지 물질적, 생물적, 혹은 본능적인 유기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이 융합된 일체로서, 정신과 영혼, 정서 등의 무형의 작용이 최초로 유래되면서 최종적으로 발현되는 통합적 구현체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통합적인 몸은 인간 그 자체를 일컫는다고 할 수 있겠다.

『율리시스』의 각 장이 인간의 생물학적 장기와 제각기 상응하며, 결국 이들이 모두 모여 작품의 전체 형식적 틀을 이루고, 그 전체 틀을 통해 작품의 내용이 충만하게 발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작품 『율리시스』는 그 자체로 하나의 “몸”이 된다고 볼 수 있겠다. 이 작품 속에서는 조이스의 통전[通全, (w)holistic]적인 “몸”관(觀)이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식을 통해서도 구현되고 있으며, 『율리시스』의 중요 모티프로서 하나의 개체가 다른 개체의 특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제2의 개체로 전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개념을 담은 “만물 안의 만물”(all in all)이나 “통합실체”(consubstantiality), “실체전환”(transubstantiality) 등의 개념 속에서 지속적으로 암시되어 있다.

사실 이러한 통전적인 관점은 서양 문화에서 전적으로 낯선 것은 아니다. 신학자 루돌프 볼트만(Rudolf Bultman)에 따르면, 성경에서 사도 바오로는 “몸”이라는 단어로 인간 자체를 지칭하는 경우가 빈번했으며(Bultmann 194), 레오 스타인버그(Leo Steinberg)에 의하면 르네상스 미술 또한 예수 신성의 “몸”으로 육화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인간 몸의 특성 안에서 예수를 형상화했다고 한다(Steinberg 1-17). 몽테뉴(Michel Montaigne) 또한 “정신과 몸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각자의 활동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Montaigne 45)라고 밝힘으로써 일찍이 몸과 정신의 유기적 관계를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통전적 관점은 20세기 들어 서서히 부활하기 시작하여 최근 들어서는 존 비니(Jon Binnie viii), 데니스 패트릭 슬래터리(Dennis Patrick Slattery 10)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지지층을 더욱 넓혀가고 있다. 근대 이성의 시작과 함께 명맥을 유지하기에도 벅찼던 몸에 관한 통전적 시각이 조이스의 작품 안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의 남다른 통찰력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 준다.

이러한 조이스가 바라본 20세기 전후의 아일랜드는 몸의 영역을 단지 물질적, 본능적 차원으로 한정시키며 그 잠재성을 억압해마지 않는 사회였다. 산드라 M 덴 오테(Sandra M. Den Otter)에 따르면 당대에는 인간의 의식과 대항자적 역할에 대한 이상주의적 논의가 철학과 사회학 분야의 중심에 놓여 있었고, 국가와 제도적 기관들은 인간을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차원으로 숭고화시키려는 이상주의적 기획을 세우고 인간의 의식과 행동을 규제하고 조절하려는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다(Otter 1). 예를 들면, 도덕성 개조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몸을 감시의 대상으로 삼은 “사회정화운동”(the social purity movement)(Mullin 4), 애초의 의도와는 별개로 남성적인 강건한 몸과 예의범절을 충실히 따르는 몸가짐을 남성적 내면의 덕목의 징표로 간주하게 만든 “남성성 숭배사조”(the cult of masculinity)(Rosen 215-38), 이상적인 부부상을 고취시킨다는 도덕적 기치 하에 결혼생활 뿐 아니라 몸의 생명력마저 상실하게 만든 “가정 숭배사조”(the cult of domesticity)(Tosh 27-50) 등이 이러한 사회, 문화적 시도의 증거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규제의 중심에 몸이 자리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주의적인 아일랜드의 사회분위기 속에서 몸은 “충만한 인간성의 집”이 아니라 그 동물적 충동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오염시키는 죄의 발원지(종교적 관점), 오감의 제한적인 능력 때문에 절대이성을 추구하는 정신작용에 오류를 일으

키는 신뢰할 수 없는 보조자 (학문, 과학적 관점), 일차적 생리현상으로 교양인의 위엄을 훼손시키는 비천한 생물적 구성체 등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몸은 공적 영역과 의식 영역에서 추방되고 만다. 이러한 시도의 이면에는 제도를 통해 인간 의식을 합당한 형태로 주조하고, 필연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몸에 대해서는 일정기준에 부합하는 신체요소만 수용하겠다는 당대 사회의 편협한 논리가 깔려 있다.

반부르주아적이며, 반권위주의적 관점을 지닌 조이스(Caragher 172-73)는 이러한 인간성 왜곡 현상을 『율리시스』의 인물들을 통해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다. 작품의 세 인물 중, 특히 블룸(Bloom)은 당대 아일랜드 중산계층을 지배하던 유형, 무형의 제도에 의해 몸의 성정을 자연스럽게 발현하지 못한다. 그것은 비틀리고 억눌리게 되며, 그는 마침내 “나는 커다란 역경에 처했어”(U 576) 라고 실토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본고는 종교적, 인종적, 계층적인 타자인 블룸이 타자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가는 와중에,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백인중산층으로 구성된 주류사회의 관습에 종속되어 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이는 조이스가 아일랜드 사회의 핵심요소로 규정한 바 있는 “신혼 부르주아 관습”(the new bourgeois conventions)(*Critical Writings* 165)의 폐해가 어떻게 몸의 억압과 인간 삶의 왜곡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될 것이다.

II.

1. 유태인 몸의 억압

사실 블룸의 인종적 태생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여기서는 에드문드 엡스타인(Edmund Epstein)의 말대로 “블룸은 심정적으로 스스로를 유태인으로 여겼으며”(Epstein 221-22), 다른 아일랜드인들에 의해서도 유태인으로 취급되었다는 점에 근거해서 블룸을 유태인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이때 떠오르는 문제는 우선 그가 유태인의 몸 때문에 아일랜드인들에 의해 배척당한다는 점일 것이다. 당대 유럽 사회는 기왕에 전해져 내려오던 “방랑하는 유태인”에 대한 불신 경향이 유사과학적 이론에 의하여 더욱 강해지고 있었다. 그 한 예는 오토 바이닝거(Otto

Weininger)가 발표한 플라즈마 이론(plasma theory)이 될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남녀의 성적 형질은 체내의 플라즈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서, 남성 플라즈마는 이성의 작용과, 여성의 것은 무의식이나 본능의 작용과 연관된다고 한다.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유대인의 플라즈마가 여성의 것과 유사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기에 이른 바이닝거의 이론은 그 동안 널리 퍼져있던 부정적인 유대인상, 즉, 신뢰할 수 없고, 일탈적인 종족이라는 민족이미지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반유대주의를 더욱 강화시킨다(Byrnes 267-281).

이러한 상황에서 불륨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스스로의 몸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몸의 성정을 자의식적으로 억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 한 예를 불륨의 몸에 각인되어 있는 유대인적인 “식성”(alimentary inclinations)의 억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린제이 터커(Lindsey Tucker)가 말한 대로 “식성”은 “전(前)성적이며 본질적인”(pre-sexual and essential)(Tucker 4) 것으로서 유아기를 통해 몸에 깊이 각인되는 무형의 인종적 특성이 된다. 문제는 불륨이 이러한 본능적인 음식 기호를 내밀한 사적 영역에서만 가까스로 인정하며 공적 차원에서는 의식적으로 외면 또는 축소시키려 한다는 점이다.

조이스는 「칼립소」장(“Calypso”)을 “레오폴드 불륨씨는 짐승과 닭의 내장 고기를 맛있게 먹었다”(U 65)라는 구절로 시작함으로써 불륨의 정체성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사실 이 문장은 작품 전체에서 처음으로 불륨을 소개하는 대목인데, 그것이 불륨의 몸에 본능처럼 새겨진 음식취향과 식성에 관한 서술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다. 닐 R 데이비슨(Neil R. Davison)에 따르면, 동물 내장 음식은 동유럽 유대인의 대표적 식단으로(Davison 200-201) 아일랜드 주류문화의 관점으로 볼 때는 분명 타자의 음식이 된다. 따라서 불륨이 내장 음식을 물리와 공유하지 않고 아래층 후미진 부엌에서 외따로 음미하는 것은 타자로서의 자신의 식성을 공적 시선으로부터 숨기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위층의 물리는 빵 두 조각과 커피, 즉 전형적인 아일랜드식 아침 식단으로 식사한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 점은 물리가 배우자이긴 하지만, “존경할 만한” 아일랜드인의 식습관을 대변하며, 이 식습관이 유대인적 음식습성과 뒤섞이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말하자면 물리는 사적인 부부 사이에 잠재되어 있는 검열의 시선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들루가쯔(Dlugacz) 정육점 장면은 유대인 몸에 대한 일반적인 폄하의 관점이 불륨의 의식에 깊이 잠입해서 다른 유대인에 대한 판단의 잣대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조이스는 불륨의 눈에 비친 들루가쯔의 인상을 “죽제비 눈을 한 돼지푸줏간 주인”과 “(피)자국이 묻은 손가락”(U 70)이라는 단어로 전달한다. 간교함을 암시하는 “죽제비 눈”이나, 노동에 찌든 “(피)얼룩자국이 있는 손가락”은 건전한 근면함보다는 악착같고 실리적인 경제적 동물이라는 유대인의 일반적인 이미지를 강화시키며, 들루가쯔의 몸 전체를 규정하고 만다. 이러한 맥락 하에 경찰이 눈에 띄자마자, 불륨이 들루가쯔와 인사 나누는 것을 다음으로 연기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 것으로 보인다.

오 제발, 경찰관 나오리, 제가 숲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에 또 오세요.

여우눈에서 한줄기 열렬한 불꽃이 타오르며 그에게 감사함을 표시했다. 그는 즉시 그의 시선을 거두었다. 아니야: 지금은 안 하는 것이 좋겠어: 다음에 하자.

(U 71-72)

유대인 영역인 들루가쯔 정육점에서 만큼은 유대인의 몸이 수용될 가능성이 그 만큼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륨이 말 인사를 나누지 않기로 걱정하는 것은 인사를 나누고 서로 유대인임을 확인하는 것에 관해 고민하던 바로 그 순간 경찰을 보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공적 검열의 대표적인 대행자로서 제도적 관습과 규범의 준수를 강요하는 존재다. 공적 검열의 시선 앞에서 불륨은 그의 의식 내에서 타자로서의 유대인의 몸을 확인하게 되고, 확인된 타자의 몸은 역으로 공적 검열을 피해 마땅히 감춰져야 한다는 암묵에 따라 들루가쯔와의 은밀한 인사를 뒤로 미루는 것이다. 이로써 불륨은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 일반의 몸을 거부하는 셈이 되며, 이것은 명백히 스스로를 인종적 평화주의자로 인식하는 의식 차원의 자기 규정과 배리된다.

「하데스」장(“Hades”)에서 불륨이 뢰벤 J 도드(Reuben J. Dodd)에 대한 비난의 물꼬를 트는 것도 그가 자신의 유대인적인 몸을 억압하고 아일랜드인의 입장에 동조하려는 시도로 읽을 수 있다. 여기에서 “프로스펙티브 공동묘지”(Prospective Cemetery)로 향하는 마차 안은 더블린 사회의 축소판 역할을 한다. 마차 안에는 아

일랜들 중류층 백인 남성들이 타고 있고, 불륨은 그들의 반유대적 관점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더블린 사회에 정착하기를 바라는 불륨은 그들의 관점에 스스로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마틴 커닝햄은 더블린 경시청의 관료로서 여타 인물들의 의견을 주도하거나 제압하는 인물이다. 이 상황에서 마틴 커닝햄의 시선과 불륨의 시선이 마주치는 장면은 (“그의 눈과 불륨씨의 눈이 마주쳤다” U 117) 다름 아닌 아일랜드 백인 중산층 남성의 시선이 불륨의 시선을 제압하는 순간에 다름 아니다. 그 결과 불륨은 커닝햄 부류에 동조하여 뤼벤 J 도드를 비난하는 일에 합류한다. 아니,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뤼벤 J 도드에 얹힌 수치스런 일화의 물꼬를 새롭게 뜸으로써, 자신과 여타 유대인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 안간힘을 쓴다 (“불륨씨는 동반자들의 얼굴에 대고 갑작스럽게 열을 내며 말하기 시작했다” U 117). 그러나 이러한 동조의 노력은 오히려 그의 유대인적 타자성만 부각시키고 고립만 심화시킬 뿐이다. 몸에 각인된 특성은 의식이 억압하고 숨길수록 더욱 선명하게 각인되기 마련인 것이다.

한편 조이스는 감각적 경험을 통해 유대인의 몸의 성정이 자연스럽게 발산되고, 공동체적 일체감이 증폭되는 경우를 제시해 주기도 하는데, 그 한 예가 불륨과 몰리가 유대인 친구인 씨트론(Citron) 및 모이젤(Moisel)과 함께 옛날 유대인의 영토에서 공급된 오렌지와 레몬의 진한 냄새를 즐기던 경험이다.

얇은 습자지에 싸여 상자 안에 있던 오렌지들. 레몬도 있었지. 그 씨트론이 아직도 세인트 케빈 광장에 사는지 모르겠군. 그리고 마스티안스키가 오래 된 기타를 들고 있었지. 그 당시 우리는 즐거운 저녁시간을 함께 보냈어. 몰리가 씨트론의 버들가지 의자에 앉아 있었지. 들고 있으면 기분이 좋은, 차갑고 말랑 말랑한 과일을 손에 들고, 콧구멍에 대고 그 향기를 맡았어. 그 진하고, 달콤하고, 강렬한 향기. 해마다 언제나 같았지. 그것들은 게다가 비싸게 팔린다고 모이젤이 말했어. 아버터스 장소: 플레즌즈 거리: 즐거웠던 옛 시절. (U 72-73)

오렌지와 레몬(citron)은 고래로 유대인의 거주지역이 되어온 중동아시아로부터 수입해 오는 것이며, 불륨은 씨트론 등의 유대 친구들과 그것의 강렬한 향기를 한껏 즐긴다. 이러한 후각적 즐거움은 그들의 동일한 유대인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동시에 그들 간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물론 이때의 유대감은 피해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모든 억눌린 감정을 해방시키는 카타르시스적인 것

이기에 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 경험의 공간은 씨트론의 집, 즉 유태인의 몸이 점열의 대상으로 문제시 되지 않는 자유의 영역이며, 그 경험이 이루어진 시기는 중산층적 규범이 불륨의 삶에 심각하게 작동하기 이전의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공간은 “플레즌츠(Pleasants) 거리: 즐거웠던(pleasant) 옛 시절”(U 73)로 기억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회상도 현재 “방랑하는 유태인”에 대해 일반적으로 퍼져있는 부정적 이미지에 의해 곧 제압되고, 중국에는 늙은 술주정뱅이 노파의 몸의 이미지로 대체되고 만다(U 73). 이는 곧 불륨이 자신의 몸을 늙고 쇠약해지는 몸으로 인식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작품 내내 그는 이러한 자신의 몸에 대해 자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몸의 도구화: 남성성 숭배와 행동규범

당대 아일랜드의 남성은 신체적 용맹함, 기사도적 덕목, 도덕적 강직성, 애국적 열정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이상적 남성성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19세기 중기 이후 영국과 아일랜드를 지배하던 찰스 킹슬리(Charles Kingsley) 목사의 “기독교적 남성성”에 대한 운동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서 이 “남성성” 운동은 애초의 의도와 달리 신체적 특질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으로 변질되면서, 왜곡된 형태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이른다(Vance 126-134). 이에 따라 이상적인 남성기준에 미달하는 이른바, 유태인, 흑인, 하층민의 몸은 주변부로 밀려나고 배척의 대상이 된다. 조이스의 통전적 “몸”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풍조는 남성성의 자연스런 표현이라기보다는 피상적이며 인위적인 이미지 조작의 경향으로서 통합적인 몸을 살려내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율리시스』에서 조이스는 타자로서의 불륨이 주류 중산층 남성집단으로부터 배척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남성성의 잣대에 비추어 변화시키려는 모습을 그림으로써 남성성에 대한 왜곡된 숭배가 어떻게 각 개인의 고유한 몸을 억압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율리시스』에서 불륨은 여성적인 특질을 적지 않게 지닌 인물로 나타난다. 그는 스스로를 “부드러운 불륨”으로 명명하고, 이에 대응하는 신체적 예로 “부드러운 손가락,” “새털 같은 머리카락,” “(부드러운) 배”(U 232)를 들며, 자신을 파넬(Parnell)이나 보일런(Boylan) 등의 남성적 인물들과 비교한다. 물리 또한 불륨을 “남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름다웠지”(U 879)라고 표현한다. 사실 그는 아일랜드

남성들에 의해 “이도 저도 아닌 인간”으로 비하되며 비교적 중립적인 스티븐(Stephen)마저도 「에우마에우스」장(“Eumaeus”)에서 불륨의 몸이 “근육이 없고 흐늘흐늘”(U 769) 하다고 여기면서 이질감을 느낀다. 이미 유태인적인 특성 때문에 남성성의 기준에서 한참 거리가 멀게 된 자신의 몸에 여성적 특질이 첨가됨으로써 불륨은 스스로의 몸에 대해 더욱 강한 콤플렉스를 갖게 된다.

이렇듯 남성성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몸을 열등한 것으로 분류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불륨이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성에 은연중에 집착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불륨은 자신의 미흡한 남성성을 보완하기 위해 각방으로 노력을 기울인다. 예를 들어 음악, 정치, 종교, 의술 등에 관하여 야간토론을 벌임으로써 권위적이면서도 지적인 남성의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는가 하면(U 776)(Schwarz 80-81), 고등학교 소변대회에서 우승해서 자신의 남성성을 입증해 보이려는 우스꽝스러운 노력을 하기도 한다(U 825). 그는 또 운동기구인 “원더 워커”(Wonder Worker)에 관심을 기울이거나(U 73, 567), 샌도우(Sandow)식 운동을 시도해 보기도 한다. 한마디로 그는 사회적 기준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새로운 남성을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을 줄곧 해온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륨은 자신의 비남성적 특성을 제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몸에 대해 염려만 더해갈 뿐이다. 남성성에 대한 이러한 집착은 타자로서의 자신의 몸에 대한 억압이자 통제에 다름 아니다. 「써시」장(“Circe”)에서 여성으로 변한 불륨이 중산층의 권위적인 남성인물로 변한 벨로(Bello)에 의해 겪는 온갖 수치와 모멸은(U 642, 644) 바로 당대 여성의 처지뿐만 아니라 남성 개인에게 내재된 여성적 특성이 남성적 원리에 의해 억압 받는 상황을 선명하게 증명해 준다.

한편 조이스는 남성성의 한 덕목으로서 부르주아적 행동규범을 내세우는 것이 실은 몸을 도구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어린 시절 사방치기를 하다가 놀이 규칙을 어기면 “패자” 혹은 “죄인”이 되었다는 불륨의 기억이 암시하는 것처럼 (U 94) 사회는 구성원들이 사회의 행동규범을 지키기를 요구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죄인”으로 추방한다. 따라서 사회구성원은 죄인으로 추방되지 않기 위하여 본연의 심정과는 상관없이 행동규범에 따라 신체를 조종하는 데 익숙해지는 것이다. 조이스는 이렇듯 행동규범을 강제하는 것이 몸을 사물화시키는 것과 동일한 것임을 장례식장으로 가는 도로에 세워져 있는 묘지 조각상들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석조장 뜰이 오른쪽에 있다. 마지막 코너다. 기다란 땅덩어리에 오밀조밀 말 없는 조각들이 하얗게, 애달프게, 손을 조용히 내밀고, 슬퍼서 무릎을 꿇고,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다. 조각의 단편들이 잘려져 있다. 하얀 침묵 속에서: 애원하며. 최상의 구매품목. 기념비 건축가 겸 조각가, 토스 H 데너니. (U 125)

석상들은 정해진 공식에 따라 동일하게 제작되며 통전적이라기 보다는 “단편”에 불과한 것이고, 경건함이라는 규범을 따르기 위해 일정한 액수의 돈을 주면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블룸은 이들 조각상이 “허공 속에 공허한 몸짓을 하고 있다”(U 126)라고 생각한다. 조이스는 여기에서 돌로 만들어진 조각상의 경건한 자세가 본질적으로 공허한 것처럼 이것들과 유사한 자세를 취하는 조문객들의 몸짓도 사실은 공허한 허울이며, 그런 만큼 통전적인 몸과 거리가 먼 것임을 암시한다.

허구적인 몸짓의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장례식을 집전하는 코피(Coffey) 신부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전례서의 구절을 기계적으로 읽는데, 까마귀를 연상시키는 그의 낭송은 식 자체를 장례식 절차에 따라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쇼로 만든다(“쇼를 이끌고 있다”U 130). 조이스는 그의 이름을 관을 의미하는 “coffin”과 음성학적으로 유사한 “Coffey”로 지었으며, “근육질의 기독교인”이라는 단어로 지칭함으로써, 당대의 전범으로 간주되던 “강건한 남성적 기독교인”의 규범이 진정성을 상실할 경우 의사죽음으로 몸을 내몰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주목할 만한 것은 블룸 또한 이러한 기계적인 몸짓과 통전적인 몸의 괴리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의 규범을 짐짓 “조심스럽게” 그리고 “경건하게”(U 130)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조이스는 “블룸씨는 앞자리 근처 뒤편에 서서, 사람들이 모두 무릎을 꿇었을 때 주머니에서 신문을 꺼내 앞에 펼치고는 오른쪽 무릎을 그 위에 구부렸다”(U 130)라는 묘사를 통해 블룸의 일차적 관심이 양복에 먼지가 묻지 않도록 하는 일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곧, 장례식에 임하는 그의 태도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순전하지는 않다는 의미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의 경건한 태도 또한 그의 실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도구화된 몸짓으로 읽힐 소지가 있는 것이다. 결국 블룸을 비롯한 조문객 일행의 몸은 종교 규범의 대행자인 코피 신부와 경찰 첩자이자 장의사 조수인 코니 켈러허(Corny Kelleher)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도구가 되며, “시체, 신체, 송장”(U 99)과 진배없게 되는 것이다.

3. 생리적 기능과 성애적 관심

유난히 불륨 장은 생리적이거나 성애적인 현상에 대한 묘사로 가득 차있다. 이는 조이스가 이러한 기능을 대표적인 몸의 현상으로 보고, 인간 삶의 기본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심은 당대로서는 드문 태도로서, 서양 주류 문화가 신경증적인 숭고화 과정을 통해 배설 및 성을 비하시켜온 과정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본질로 돌아갈 것을 권하는 작가의 권유라고 볼 수 있겠다. 사실, 조이스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비둘기들의 배설물 세례를 받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그려 보거나(U 205), 시인 토마스 무어(Tommy Moore) 동상과 공용화장실을 순차적으로 연상하는 불륨의 상상을 통해 몸의 기능을 폄하시켜온 제도적 권위에 대하여 가상의 전복을 꾀하고 있다(Ansbaugh 77).

서구 역사를 통해 성애적인 현상이 생식과 결혼이라는 근거에 의해 그 가치를 어느정도 인정받아온 반면, 생리적 기능은 철저히 사적인 영역으로 추방되어 왔다. 그러나 조이스는 생리적인 현상, 특히 배설행위가 사실은 모든 인간의 행동의 기초를 이루고 있음을 꿰뚫고 작품에서 이를 형상화하고 있다. 불륨이 칼립소 장에서 외부 화장실에 가는 장면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그는 벽 옆에서 자라고 있는 박하의 가냘픈 잎사귀를 살펴보려고 몸을 구부렸다. 여기에 정자를 하나 짓자. 강낭콩. 담쟁이. 이곳 전체에 인분비료를 좀 쥐야겠군, 황폐한 땅이야. 적갈색 유향으로 덮였군. 똥거름이 없으면 모든 땅이 저렇게 되고 말지. 집이 쇠락해 가고 있어. 흑토가 있네, 여기 있는 이것은 뭐지? 옆집 마당에 닭들이 있지: 그 똥이 훌륭한 거름인데. 그래도 제일 좋은 것은 소똥이지, 특히 깻묵을 먹고 자란 소가 그렇지. 똥을 바른 짚. 숙녀용 양가죽 장갑을 닦는데 최고지. 더러운 세척. 재도 그렇지. 이곳 전체에 거름을 주어야겠어. 콩을 저 구석에 심자. 상처도. 그러면 언제나 신선한 푸성귀를 먹을 수 있겠지. 조용한 정원은 어딘가 잘못된 거야. 벌이나 파리 같은 것들이 성령처럼 월요일 즈음에는 이곳에 날아다녀야 하고말고. (U 82-83)

여기에서 불륨은 인간과 동물의 배설물이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식물을 성장시키며, 심지어 숙녀의 의상소품을 다듬는 데도 쓰일 수 있음을 상기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비록 불륨의 인식이 의식적으로 각성된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독자에게 생리적 기능의 가치를 충분히 전달하고도 남는 것이다. 사실 배설물 자체는 더러운 것도 추한 것도 아니며, 생명이 없는 죽음의 물질도 아니다.

도리어 그것은 죽음을 삶으로 연결시켜주는 재생의 잠재력을 충만히 지니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자연 순환의 필수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어지는 화장실 장면 또한 주목을 요한다. 여기에서 블룸은 배설을 하면서, 신문에 실린 “맷참의 수완”(Matcham's Masterstroke)을 읽는다. 이 때, 조이스는 블룸의 배설 행위와 보포이씨(Mr. Beaufoy)의 집필과정에 관한 묘사를 교묘히 병치시킴으로써, 본질적으로 예술적 창작과 생리적 배설 행위가 자기를 드러내는 카타르시스적 행위임을 암시하고 있다. 조이스가 파리시절의 메모장에 배설물은 “지각 있는 물질이 지닌 인간적 성향”(human dispositions of sensible matter)을 대표한다고 언급한 것에 함축되어 있듯이 여기서 배설물은 자신의 분신이며, 자기 표현물이라는 점에서 예술창작물과 등치될 수 있는 것이다.

조이스는 이러한 등치를 경제활동으로도 연장시킨다. 블룸이 화장실 안에서 보포이의 상금을 헤아리는 과정은 배설과정과 병치되고 있으며, 이때, 화장실은 “회계실”(counthouse)이라는 별칭을 얻는다. 이것을 노만 브라운(Norman O. Brown)의 진술, 즉 “재물은 ... 무의식에서 배설물로 남아 있다”는 주장에 비추어 보면, 축적한 화폐 또한 배설물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분신인 것이며, 이에 수반되는 경제행위 역시 자기보존 및 자기표현의 활동으로 볼 수 있겠다. 브라운에 따르면 유아들의 배설물 장난은 성장하면서 관습적인 규범에 의해 금지되는데, 이때 애초에 가졌던 배설물에 관한 관심은 축적된 동전에 대한 관심으로 전이되므로, 이런 입장에서 보면, 금전적 회계 행위는 기본적인 배설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Brown 293). 그러므로 화장실 장면은 인간의 모든 활동이 몸의 생리적 활동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각 활동들 간의 위계질서가 사실은 허구일 수 있으며, 몸의 생리적인 활동이 창작행위나 경제활동보다 열등하거나 추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한편 조이스는 이러한 원칙론적인 암시와 함께 서구문명이 숭고화라는 명목 아래 감행해온 생리적인 몸의 억압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는데, 맥휴 교수(Professor MacHugh)가 그리스와 아일랜드의 고결한 정신문명을 찬미하며 영국과 로마제국의 “분변강박증”(cloacal obsession)(U 166)을 비방하는 대목은 그 예가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회의 영향력으로부터 블룸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는 버튼(Burton) 식당의 무지막지한 대식가들에게 혐오감을 느끼고, “모범주점”(Moral Pub)을 갖춘 우아한 분위기의 데이비 버언(Davy Byrne)

식당으로 향한다거나, 화장실을 출입할 때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로써 어떤 개인도 당대의 부르주아지 관습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성애적인 감각에 집착하는 불륨의 모습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불륨은 이웃집 아가씨로부터 시작해서, 그로브너 호텔(Hotel Grosvenor) 앞에서 있었던 상류층 규수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몸을 욕망의 대상으로 주물화하며 자신의 성애적 감각을 충족시키는 일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이러한 성적 집착의 모습이 통전적 몸의 관점에서 볼 때 다분히 말초적이며, 감각적인 성격을 띠는 점이다. 불륨이 거티(Gerty)와 해변에서 갖는 경험은 그 좋은 증거가 될 것이다. 표면상 상대에게서 서로 이상적인 연인상을 발견한 듯 보이는 이들이 결국에 가서 보여주는 것은 포르노적인 감각적 경험이다. 불륨 스스로도 “활동사진 그림,” “훔쳐보는 호색가”(Peeping Tom) “가짜”(U 480)라는 구절들로 그 현장을 서술하고 있으며, 거티 또한 성녀와 유혹녀의 경계를 넘나들며 불륨의 시선을 유혹한다. 배경을 이루는 불꽃놀이는 이들의 관계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그들 간에 존재하는 물리적 거리는 두 사람의 유사결합이 온전한 일체감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다. 아담 파크스(Adam Parkes)가 말했다시피 이들의 포르노적인 관계가 보여주는 것은 성에 관련된 모든 것을 “타자의 것”으로 배척한 당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의 억압이 결국 몸의 본성을 말초적인 형태로 변질시켰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Parkes 289-92). 통전적인 몸의 온전한 결합이 크리스테바(Kristeva)가 주창한 “환희”(jouissance)의 경험으로서 재생적이고, 지속적이며, 전체적인 것이라면, 이들의 경험은 “쾌락”(plaisir)의 경험으로서 불모적이고, 일시적이며, 말초적이라는 한계를 지닌다(Kristeva 16). 조이스는 이들의 관계를 통해 당대의 억압적 성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한편 감각적 경험을 몸의 통전적인 경험과 등치시키는 단편적 사고 역시 경계하고 있다.

4. 가정도덕 규범과 몸의 처벌

당대의 지배적인 풍조 중 하나는 “모범적인 가정”에 대한 과잉 집착이었다. 이상적인 가정은 자상하며 통솔력을 발휘하는 남편이자 아버지인 가장(*pater familias*)과 그 가장을 옆에서 보조하며 온유, 순결, 헌신, 겸양의 덕목으로 가득

찬 아내이자 어머니로 상징되었다. 그러나 조이스는 이러한 지배적 풍조 역시 몸의 억압과 왜곡에 적지 않게 이바지함을 통찰하고, 블룸과 몰리의 부부 소외를 통해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블룸에게 아들 루디(Rudy)는 유난히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블룸이 인종적 타자로서 겪는 고충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이러한 블룸이 아일랜드 중산층 사회에 정착하려는 소망을 루디의 입신을 통해 실현하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물론 블룸의 이러한 바람이 유대인의 장자존중 관습으로부터 영향 받아 더 한층 강화되었음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루디가 죽은 것은 그의 꿈의 좌절이며, 삶의 상실이나 진배없는 것이다. 블룸이 루디의 수태 장면을 회상하는 것은 루디의 죽음의 원인을 거꾸로 추적해 올라가는 일종의 탐문과정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회상장면에서 밝혀지는 것은 몰리가 성적충동에 지배되었다는 점, 그것도 개 두 마리에 의해 매우 불순하게 촉발되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사람이 공적 검열의 대행자인 경찰의 시선 앞에서 도발적인 행위를 감행했다는 점 등이다. 이 모든 것은 육체성이 제거된 이상적인 모성상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성도덕과 제도권의 권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인 것이다. 중산층적인 가정규범이나, 이상주의적 남녀상의 관점에서 보면 도발적인 성행위를 감행한 몰리와 블룸의 몸은 다름 아닌 불순한 욕정의 근원지가 된다. 이에 따라 블룸은 무의식중에 자신과 몰리의 몸을 외면하게 되며, 그 처벌 기간은 지난 11년의 세월이 된다. 존 토쉬(John Tosh)가 말한 대로 “이상적인 가정주의는 모든 면에서 볼 때 여성뿐 아니라 남성을 (재)창조하려는 노력”이었고(Tosh 50) 조이스는 이러한 이상주의가 온전한 남녀관계를 오히려 방해, 변질시키며, 궁극적으로 결혼생활 뿐 아니라 살아있는 몸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음을 주시하고, 작품을 통해 그 폐해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III.

이상에서 우리는 『율리시즈』의 블룸의 경우를 통해 20세기 전후 아일랜드의 지배적인 규범들이 어떻게 개인의 몸을 억압하고 그 잠재성을 소멸시켰으며 그

반작용은 어떤 양상을 띠는지 살펴보았다. 노만 브라운이 말했듯이 “숭고화의 역사과정이 한편으로는 몸을 점증적으로 억압해온 과정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억압된 몸이 소외된 모습으로 서서히 귀환하는 과정”(Brown 297)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이스의 『율리시스』에서 그러한 역사과정을 목격하게 된다. 조이스는 말하기를 “대부분 사람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좌절된 낭만주의, 어떤 실현되지 못했거나 잘못 설정된 ‘이상’이다. 분명히 이상주의는 인간을 피폐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시인들처럼 ‘사실’에 기반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한결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일갈한다(Power 98). 『율리시스』를 통해 결국 조이스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로 귀환해야 하며, 우리의 몸이 그 ‘사실’ 범주에 포함된다고 넌지시 일러주고 있다. (서울대)

인용문헌

- Joyce, James. *The Critical Writings of James Joyce*. New York: Cornell UP, 1989.
- _____. *Ulysses*. London: Penguin, 1992.
- Anspaugh, Kelly. "Powers of Ordure: James Joyce and the Excremental Vision(s)." *Mosaic* 27 (1997): 73-100.
- Barkin, Leonard. *Nature's Work of Art: The Human Body as Image of the World*. New Haven: Yale UP, 1975.
- Binnie, Jon, David Bell, and Ruth Holliday, eds. *Pleasure Zone: Bodies, Cities, Spaces*. Syracuse: Syracuse UP, 2001.
- Brown, Norman O. *Life against Death: The Psychological Meaning of History*. New York: Random House, 1959.
- Budgen, Frank. *James Joyce and the Making of Ulysses and Other Writings*. London: Oxford UP, 1972.
- Bultmann, Rudolf. *Theologie des Neuen Testaments*. Tübingen: J.C.B. Mohr, 1958.
- Byrnes, Robert. "Weiningerian Sex Comedy: Jewish Sexual Types behind Molly and Bloom." *JJQ* 34 (1997): 267-81.
- Caraher, Brian G. "Cultural Politics and the Reading of 'Joyce': Cultural Semiotics, Socialism, Irish Autonomy, and 'Scritti Italiani.'" *JJQ* 36 (1999): 171-214.
- Davison, Neil R. *James Joyce, Ulysses, and the Construction of Jewish Identity: Culture, Biography, and "the Jew" in Modernist Europe*. Cambridge: Cambridge UP, 1996.
- Epstein, Edmund. "Joyce and Judaism." *The Seventh of Joyce*. Ed. Bernard Benstock. Bloomington: Indiana UP, 1982.
- Kristeva, Julia. *Desire in Language*. New York: Columbia UP, 1980.
- Judovitz, Dalia. *The Culture of the Body: Genealogies of Modernity*. Ann Arbor: U of Michigan P, 2001.
- Montaigne, Michel De. *Essays*. Trans. J. M. Cohen. London: Penguin, 1993.

- Mullin, Katherine. *James Joyce, Sexuality and Social Purity*. Cambridge: Cambridge UP, 2003.
- Otter, Sandra M. Den. *British Idealism and Social Explanation*. Oxford: Clarendon, 1996.
- Parkes, Adam. "Literature and Instruments for Abortion: Nausicaa and the Little Review Trial." *JJQ* 34 (1997): 283-301.
- Power, Arthur. *Conversations with James Joyce*. London: Millington, 1974.
- Rosen, David. "The Volcano and the Cathedral: Muscular Christianity and the Origins of Primal Manliness." *Muscular Christianity: Embodying the Victorian Age*. Ed. Donald E. Hall. Cambridge: Harvard UP, 1978.
- Schwarz, Daniel R. *Reading Joyce's Ulysses*. Houndmill: Macmillan, 1987.
- Slaterry, Dennis Patrick. *The Wounded Body: Remembering the Marking of Flesh*. Albany: State U of New York, 2000.
- Steinberg, Leo. *The Sexuality of Christ in Renaissance Art and in Modern Oblivion*. New York: Pantheon, 1983.
- Tosh, John. *A Man's Place: Masculinity and the Middle-Class Home in Victorian England*. New Haven: Yale UP, 1999.
- Tucker, Lindsey. *Stephen and Bloom at Life's Feast: Alimentary Symbolism and the Creative Process in James Joyce's Ulysses*. Columbus: Ohio State UP, 1984.
- Vance, Norman. *The Sinews of the Spirit: The Ideal of Christian Manliness in Victorian Literature and Religious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P, 1985.

Abstract

Bloom's Repressed Body in *Ulysses*

Inyeoung Song

This essay aims to explicate what James Joyce thinks of the human body and why and how Bloom's body has been repressed in *Ulysses*. Since the issue of the body is closely and widely interlaced with every aspect of character's life, this approach affords us with a deeper understanding of Joyce as well as character.

Joyce has a (w)holistic view of the body. According to him, the body is not just an erroneous physical entity, but an embodiment of every part of the human being. However,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Dublin was dominated by idealism, which caused the Irish people to have a dichotomous view of body and soul. As a result, people should repress their body, whether with awareness or not.

Ulysses shows us Bloom's repressed body from various angles. First of all, Bloom's body has to be repressed by not only the Irish Gentiles but also himself, for the reason of his Jewish identity. Bloom himself tries to evade his stigmatized Jewish body. Secondly, he methodizes his body as a tool for the ideal manliness. He makes efforts to "make a new man" out of his feminine form and obeys the code of conduct for the purpose of securing a safe place in society.

Thirdly, Joyce presents Bloom's bodily repression in terms of physiological and sensual experience. Even though he unconsciously recognizes the meanings of physiological function, he consciously tries to hide it from the public gaze and chooses the "respectful" manner concerning eating. On the other hand, Bloom has an excessive sensual interest in the female body. His semi-pornographic liaison with Gerty proves the futility of sensually-obsessed activity. Lastly, Joyce shows through the Blooms' present predicament the extreme to which the domestic ideal" and "the feminine ideal" have negated the body and as a result, distorted the couple's marital life.

Joyce knows that as far as the ideal disparages the body as inferior and immoral, it only leads an individual's life to barrenness and perversion. Bloom is its representative victim of the pyrrhic victory of the “ideal.”

■ Key words : James Joyce, *Ulysses*, Dublin, Bloom, body, repression, wholism
(제임스 조이스, 『율리시스』, 더블린, 블룸, 몸, 억압, 통전주의)